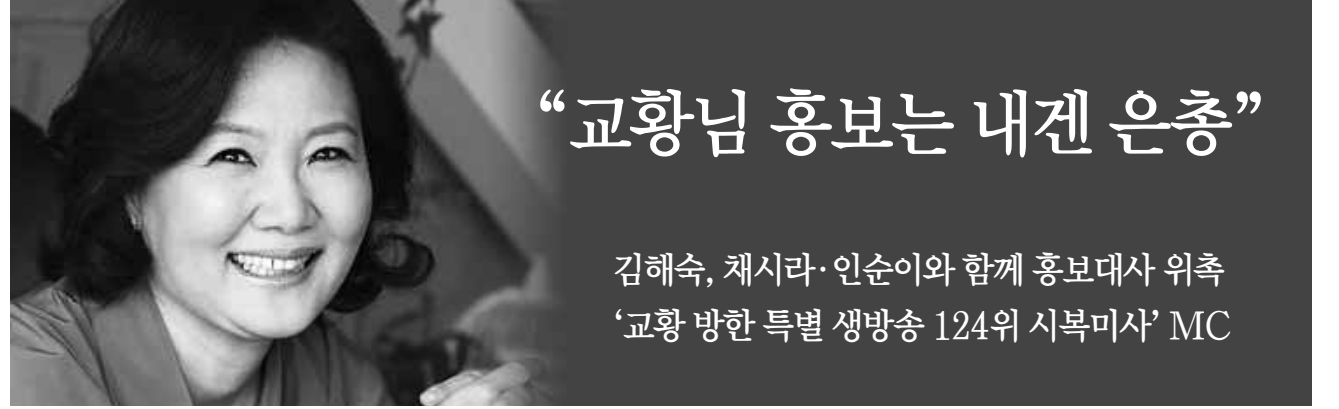


TV 1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5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Rows 6-12 and 1-12 listing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교황님 홍보는 내겐 은총”

김해숙, 채시라·인순이와 함께 홍보대사 위촉 ‘교황 방한 특별 생방송 124위 시복미사’ MC

“처음에는 마냥 기쁘고 흥분됐는데 지금은 두려운 마음이 더 앞서네요. 죄 많은 제가 이런 중책을 감히 맡아도 되나 싶어요.”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홍보대사로 위촉된 배우 김해숙(59·사진)은 11일 이렇게 말하면서 “교황님의 큰 가르침을 따라 살라는 하늘의 뜻 같다. 당연히 앞으로 그렇게 살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40대 때 배우 음식 사업을 벌였다가 실패해 수년간 빚을 갚는 데 매진해야 했다. “모든 것을 잃고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천주교에서 마음의 구원을 받았다”는 그는 “그때 이후 독실한 신자가 됐고 어머니가 주신 묵주 반지도 늘 끼고 다니면서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해숙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즉위 전 주교로 있던 아르헨티나 성당을 지난해 우연히 방문하기도 했다. 그는 “당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계셨던 성당이라는 설명에 은총을 받는 느낌이 들었고 정말 기뻐했다. 바로 그 교황님이 우리나라를 찾아주시니 기쁘고 내가 홍보대사를 맡게 돼 떨리고 다른 분들께 죄송스럽기도 하다”고 말했다.

“연기는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주죠”

정유미 영화 ‘터널 3D’ 첫 주연



SBS 드라마 ‘천일의 약속’과 MBC 예능 ‘우리 결혼했어요’ 등을 통해 주목받은 배우 정유미(30·사진). 익숙한 얼굴이지만 이 배우가 데뷔한 지 이미 10년이 지났고, 나이도 서른을 넘었다는 건 다소 의외다. 대학 선배들이 연출부도 참여한 ‘살미도’(2003)나 ‘인형사’(2004) 같은 영화에 출연하며 배우의 길을 걷기 시작한 정유미는 주로 방송을 통해 얼굴을 알렸고, 다시 영화계로 돌아왔다. 이번에는 단역이 아니라 주연이다.

“살미도가 나지 않아요. 기억하기 어려운 작은 역할에서 이제 주연인공을 맡았어요. 아직까지 이게 제 자리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인형사’를 찍던 그때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도 없고요.” ‘터널 3D’를 통해 영화에서 첫 주연을 꿰찬 배우 정유미의 말이다. 그가 맡은 은주는 수줍음 많고 세심한 성격의 여대생이다. 시체를 숨기고자 폐 탄광에 숨어든 다섯 남녀가 하나둘씩 죽어가는 이 영화에서 은주는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쫓 인물이다. “초중반 감정을 잡기가 조금 어려웠어요. (촬영은 영화 내려 티브의 거의 역순으로 진행됐다) 은주는 등장인물 중 튀지 않고 조용히 묻어 지내는 인물인데 그래서 더 표현하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후반부부터는 감정이 명확해지는 데 그때가 초중반보다 오�히려 훨씬 쉬웠어요.” 영화는 찬바람이 한창인 2월 초 강원도 태백의 한 탄광에서 상당 부분 촬영됐다. “5월까지 눈이 오는 곳”이라 대단히 추웠고, “남편처럼 지어 있는” 탄광은 미로가 얽히고설켜 길을 잃기 십상이었다.

“방송 끝나고 영화 현장으로 가면 진짜 ‘겨울왕국’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옷도 두껍게 입고 나왔는데, 영화에서 좀 더워 보이더라고요. 찍을 때 지치고 힘들었는데, 연기에는 도음이 됐던 것 같아요.” (웃음) 첫 주연작에서 정유미는 영화 주제곡도 직접 불렀다. 처음이라 “노래를 진짜로 못 부른다”고 말했지만, 박규택 감독은 영화 엔딩에 김희애의 원곡 대신 정유미의 ‘나를 잊지 말아요’를 썼다. “제 노래 맞죠? 녹음하면서 노래 진짜 못했거든요. 영화에 선 나쁘지 않았어요. 제 목소리에 맞춰 넣었는데 그다지 튀지 않아서 만족해요.” 원래 내성적인 성격의 정유미는 애초 연기와는 거리가 멀었다. 집에서 교사나 공무원을 바꿨다. 그러나 고2 때 담임교사(고교 때 배우 최지우의 담임교사기도 했다.)가 인턴학원이나 다녔다는 권유에, 그곳에 갔다가 인생이 달라졌다. “너무 재밌었어요. 물건도 막 던지고, 소리도 지르고...‘나도 이런 게 가능하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연극영화과 가서 제대로 연기를 해보자고 마음먹었고, 그러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요.” 정유미는 올해로 30대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나이 때문에 “부담감이나 압박감은 없다”고 했다. “삶을 풍성하게 하고픈 욕심”이 연기에 우선한다고도 했다. “다양한 역할을 맡고 오래 연기하는 건” 풍성한 삶의 한 부분일 뿐. “한 작품 한 작품 소중한 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예전에는 오디션 하나라도 잘못되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매번 긴장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연기가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즐기면서 하고 싶어요. 그래야 받아들이는 처지에서도 편하고요. 느슨하게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연기에 대한 갈증은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카메오 출연이어서 상관없습니다. 조금 나외도 임팩트 있는 역할이면 좋겠어요. 다양한 연기를 해보고 싶어요.”

‘걸어서 세계속으로’ 외국인 출연자 가짜 이름 물의

KBS가 1TV ‘걸어서 세계속으로’에서 외국인 출연자들 소개 자막에 본명 대신 축구선수들의 이름을 사용한 데 대해 10일 공식 사과했다. KBS는 이날 저녁 해당 프로그램 홈페이지에 합형진 교양문화국장 명의 글을 올리고 “8월 9일 방송된 ‘교양방한 특별기획 - 전국으로 가는 열쇠, 로마·바티칸’ 중에서 인턴뷰 성함 자막이 본명과 다르게 나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시청자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고 밝혔다. 이날 해당 프로그램 홈페이지에서는 전날 방송에 등장한 이탈리아 시민이나 관광객들의 자막 이름이 유명 축구선수들의 이름과 똑같은 점을 지적하는 시청자들의 항의 글이 쏟아졌

다. 트림 운전기사와 연주가 등 일반인 출연자들은 니콜라 레고로탈리아에 다니엘레 갈로파, 도메니코 크리스키토 등 유명 축구선수들의 이름을 달고 인턴뷰 화면에 등장했으며 교황의 여름 별장 관리지라는 지오르조 키엘리니도 역시 유벤투스 FC 소속의 수비수와 이름이 같았다. KBS는 “해당 방송은 교황 방한을 맞아 긴급 기획했으며 외주제작사에서 제작했다”면서 “제작사에 경위를 파악한 결과 담당 PD가 현지에서 인턴뷰한 사람들의 명단이 담긴 메모지를 분실하고 급히 제작하느라 이 같은 사고가 빚어졌다”고 해명했다. KBS는 해당 제작사에 대해 ‘걸어서 세계속으로’ 제작 금지 조치를 취했으며 감수를 소홀한 내부 책임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조치를 내릴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BS

Table listing EBS programs including World News Review, EBS 특강, and various news and educational shows.

EBS플러스1

Table listing EBS Plus 1 programs such as Olimpico 평가문제집, 최태성의 교과서에 나오는 불교문화, and various educational content.

EBS플러스2

Table listing EBS Plus 2 programs including 2014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강좌, 2014 EBS 여름방학생활, and various educational content.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8월 12일(음 7월 17일 乙卯)

36년생 급히 냉각되는 정황이다. 48년생 부수적인 것까지 살펴보는 것이 낫다. 60년생 선택의 여지가 있다. 72년생 단일한 방법으로 임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84년생 폭넓은 시각과 이해심이 길성을 부른다. 행운의 숫자 : 61, 12

42년생 전후좌우를 잘 살펴보고 조처해야 할 때다. 54년생 잘 되어 갈 터이니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느니라. 66년생 영광스럽고 복된 날이 될 것이다. 78년생 유지가 무리함이 따르지 않도록 하자. 행운의 숫자 : 76, 69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